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즉흥

노영재*

Taken by Surprise: A Dance Improvisation Reader

Edited by Ann Cooper Albright and David Gere, 2003.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춤에 있어 즉흥이 중요한 실기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공연의 형태로 활성화된 시기는 1970년대 포스트모던댄스 시대가 그 기점이 될 것이다. 물론 20세기 초 마리 뷁그만, 하나 흠 등 현대무용가들의 작업에도 즉흥이 이용되긴 하였으나 이 시기엔 주로 신체의 훈련이나 움직임 탐구의 목적이 강했다. 달리 말하면 초창기 즉흥은 일종의 연습 도구로 무용실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었으며, 무대를 목적으로 하는 당시 현대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 즉흥은 비단 예술춤 뿐 아니라 교육, 심리, 치료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왔다. 역사와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즉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전통적인 '서양무용사'와 함께 '안무법' 혹은 '창작법' 등으로 명명되는 실기 교수법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다학제적 춤문화 연구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즉흥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무용학자들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다.

2003년 출간된 앤 쿠퍼 알브라이트(A. C. Albright)와 데이비드 기어(D. Gere)의 편저 *Taken by Surprise: A Dance Improvisation Reader*는 즉흥에 관한 22편의 에세이를 모아놓은 선집으로, 즉흥 전문 저널 *Contact Quarterly*와 즉흥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좁은 의미의 실기로서의 즉흥춤이나 공연양식 뿐 아니라 즉흥하는 몸과 사고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돋보인다. 이 책은 "현대적 방식으로 즉흥춤의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론적 측면에서 철학적, 역사적, 비평적, 혹은 문화기술지적 접근법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이 흥미롭다. 내용은 각 에세이의 주제와 초점에 따라 1장: 즉흥하는 몸, 즉흥하는 정신, 2장: 포스트모던댄스와의 듀엣, 3장: 확장하는 정전(canon), 4장: 접촉즉흥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5장: 일상 속에서의 즉흥 등 총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책의 서두를 여는 1장, '즉흥하는 몸, 즉흥하는 정신'에 속한 4개의 에세이는 구체적인 예보다는 즉흥을 크게 이론적, 철학적 견지에서 살펴본다. 이론가이든 무용수이든 즉흥을 통한 의식과 신체의 반응 및 그 연관성을 조망하는데 있어 자기 반영적 숙고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안무가이자

* 동아대학교 강사, balletyj@gmail.com

무용학자인 수잔 리 포스터(S. L. Foster)의 에세이는 즉흥에서의 의식과 신체의 작용을 말과 춤(talking-dancing)이 연계한 퍼포먼스의 형식을 빌려 표명한다. 포스터는 즉흥을 이미 '알려진 것(known)'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unknown)'이 연계되는 경이로움의 현상이라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몸은 새로운 개념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고정된 사고와 지식을 넘어 유연한 자세를 습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즉흥의 의미와 속성을 역설하는데 있어 역사적 사건, 철학적 인식, 이론/실기의 이분법이 지닌 모순의 극복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신의 글에 대한 형식과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지마비의 장애를 가진 브루스 커티스(B. Curtis)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접촉즉흥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춤 작업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신체적 인식을 가능케 하며 사회적 유대감과 긍정적 마인드를 증폭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피력한다. 그리고 전문 즉흥무용수인 루스 자포라(R. Zaporah)와 켄트 드스페인(K. D. Spain)은 실제 그들의 즉흥공연 상황 속에서 대두된 공연자의 의식과 신체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좀 더 수행적 상상을 가능케 하는 2장, '포스트모던댄스와의 듀엣'은 즉흥에 대한 실기 탐구가 강조되어 온 미국 현대무용과 관련된 논의가 펼쳐진다. 특히 포스트모던댄스의 물결 속에서 즉흥이 대두되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인 1960년대 즉흥 작업의 근원과 현상에 대한 역사적 재고가 두드러진다. 그간 현대무용가이자 즉흥전문가인 애나 할프린(A. Halprin)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해온 재니스 로스(J. Ross)는 즉흥을 접목한 아동 무용 교수법에 내재된 할프린의 철학을 조명하고 있다. 로스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이어진 아동과의 수업을 내용과 형식면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당시 할프린이 구축했던 즉흥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작업의 회상 또한 의미 있는 역사의 기록이자 시대상을 근접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흥미로운 자료가 된다. LA에서 활동하는 아방가르드 현대무용가 시몬느 포르티(S. Forti)는 할프린을 비롯한 그녀의 스승, 무용수들과 함께 한 초창기 포스트모던 즉흥 작업과 더불어 이후 춤과 내러티브의 결합을 추구하는 자신의 춤작업을 회상한다. 이와 함께 포르티의 제자 카멜라 허만(C. Hermann)은 다시 포르티의 '로고모션(logomotion)' 작업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서로 연계된 두 에세이는 흡사 스튜디오 안 혹은 안무노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며 수 십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즉흥 교수법의 다면성 잘 보여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포스트모던댄스의 도래와 발전을 면밀히 연구 해온 샬리 베인즈(S. Banes)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1990년대까지의 즉흥춤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며 세대별 특성과 밀레니엄을 향한 후반기 즉흥의 사회적 시사점을 얘기한다.

탭댄스, 플라멩코, 아프리카 요루바 댄스, 인도 바라타나티암 등 여러 지역 춤이 등장하는 3장은 현대 무용이라는 예술춤 형태 속의 즉흥이 아니라 민속춤에서부터 사회적 형태의 춤을 아우르며 즉흥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앞 장의 논의들이 미국 즉흥춤의 전통을 살펴보았다면 이 장의 논의는 기존 학계에서 만연되어왔던 미국 춤 위주의 고전적 패러다임을 넘어 즉흥이 다른 문화권의 춤에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왔다는 점이며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춤 양식에 내재된 즉흥적 요소와 활용을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논의는 그 문화권에 속한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여러 춤 속에 구축된 각기 다른 즉흥의 역할과, 미셸 헤프너 헤이즈(M. H. Hayes)의 플라멩코 작업처럼, 협업을

통한 포스트모던 즉흥과의 비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연구에 매진해온 마가렛 톰슨 드레월(M. T. Drewal)은 서두부터 서구 위주의 연구 경향을 지적하면서 서구와는 달리 참여 위주의 춤이 주를 이루는 서아프리카 요루바 댄스 속 즉흥의 특징을 얘기한다. 전반적으로 서양무용사 속 즉흥의 모습과 기술에 익숙한 독자라면 이 장에서는 디테일한 움직임과 신선한 묘사를 통해 다른 문화권에 서 바라보는 즉흥의 시각과 가치를 느껴볼 수 있다.

4장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 대두된 접촉즉흥이라는 한 형태의 춤에 초점을 두고 춤의 근원과 발전 양상을 논의한다. 접촉즉흥을 정착시킨 기념비적 인물인 스티브 팩스턴(S. Paxton), 낸시 스타크 스미스(N. S. Smith)등은 접촉즉흥의 생생한 현장에서 활동해온 안무가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으며 1970년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소규모의 사람들로 시작된 접촉즉흥의 이후 25년간 위상과 영역 변화에 대해 추적한다. 이어지는 레이몬드 깁스 주니어(R. W. Gibbs, Jr.)와 카렌 샤프먼(K. Schaffman)의 글은 하나의 즉흥작업을 두고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접촉즉흥과 '은유(metaphor)'의 개념을 연계하여 체화된 의미를 조명하는 인지심리학자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견해를 제시하는 무용학자의 두 시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론과 실기,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참여한 대립이라기 보단 풍부한 논의의 장이 즉각적으로 펼쳐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다. 끝으로 접촉즉흥 탄생 25주년을 기념하여 1997년 오버린(Oberlin) 대학에서 열린 축제, CI25에 관한 알브라이트의 글은 즉흥춤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감지하게 한다. 내부자의 시각에서 알브라이트는 축제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서, 전반적으로 현대춤 공연 양식으로서의 접촉즉흥 뿐 아니라 '접촉'의 행위가 장르를 불문하고 심미적 가치 기준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도 언급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과 형태의 춤에 내재하는 즉흥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장은 그 영역을 우리의 일상으로 더 확장시킨다. 편집자가 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상에서 포착되는, 혹은 행해지는 즉흥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장의 전제는 즉흥을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드 세르토(M. D. Certeau)가 제시한 '전술적 행위(tactic)'의 의미와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르토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인간의 존재는 상위 체계나 규칙과 같은 힘(strategy)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놓여있지만 실상 인간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선택과 미시 저항의 의지가 담긴 '전술적 행위'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곧 우리 삶을 마치 '시적으로(poetic way)'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술적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며, 체계 속에서도 창의성과 상상력을 시도하는 즉흥 행위와 유사하다. 이 부분에서 저자들은 일상 속 즉흥의 요소들을 자신이 참여한 여행이나 선불교 수행 속에서 찾아보며 이를 통해 생명력을 지닌 삶을 숙고한다. 또한 모라 키프(M. Keefe)는 춤과 야구의 성질을 함께 논의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중 스포츠에서 즉흥이 주는 유희적 측면을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에세이는 1975년 발간된 즉흥춤 저널 *Contact Quarterly(CQ)*의 창시자이자 공동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미스의 편집자 노트를 부분 발췌한 것이다. '인생 기록(Life Scores)'이라는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춤과 일상이 함께 녹아있는 스미스의 유연한 글은 선구자로서의 열정과 책무가 서려있으며 해당 장의 주제 뿐 아니라 책 전체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맺는데 손색이 없다.

*Taken by Surprise: A Dance Improvisation Reader*는 출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실용적' 목적의 즉흥 서적이 우세하는 경향 속에 즉흥을 인문학적 견지에서 통합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흥이라는 개념을 통해 각 예술출 장르 속에 규정된 몸을 해체하여 바라보게 하고, 단지 아무 기교 없이 '무의식'이나 '무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여겨왔던 즉흥의 통념을 깨고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매개로서의 즉흥 행위에 집중한다. 이는 참여자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연습'과 '훈련'을 통해 의문을 품고 상상을 발휘하며 수많은 한계와 문제해결 능력을 자각하기도 하는 다양한 즉흥의 경험과 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알브라이트는 에필로그에서 이러한 즉흥의 의미를 좀 더 사회의 현실적 차원으로 가져온다. 그녀가 이 부분에서 언급한 스미스의 유명한 용어 '공백(gap)'은 즉흥의 과정에서 지각하게 되는 추락(falling)의 순간, 어디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중단(suspension)과 지연(delay)의 순간, 혹은 명상(contemplation)에 잠기는 빈 공간(emptiness)과 같은 곳을 의미한다. 앞서 포스터가 언급한 '미지의 것(unknown)'의 만남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즉흥은 이러한 장벽이나 혼돈의 순간에 다시 나아갈 힘과 뿌연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게 하는(혹은 대안을 만나게 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경험케 한다. 이는 새로운 신체적 지각 뿐 아니라 좌절, 인내, 놀람, 기쁨 등 복잡한 정신적 작용까지도 동시에 이끌어낸다. 나아가 알브라이트는 하이데거의 용어를 빌려 '가능성에 거주하기(dwelling in possibility)'라는 표현을 쓰면서 즉흥을 통해 인간 존재와 이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 맺기를 생각해본다. 그녀는 이러한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역설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나는 여전히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존재가 미지의 것으로 향하는 훈련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정치적으로도 심오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즉흥은 세상 속에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상상하게끔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즉흥은 자기 자신을 가능성으로 향하게 훈련하는 소수의 경험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즉흥은 우리 몸에 '거주'하는 법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즉흥은 남부 맨해튼의 공허함(9.11 테러의 현장)을 국가 안보의 실패로 치부하기 보단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열려진 장'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p. 257).

미국이 테러의 상흔을 딛고 회복하는 시기에 집필된 서적이므로 편집자는 당시 사회적 최대 이슈를 하나의 예로 자연스럽게 언급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반목이나 정치경제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종종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에도 이러한 시각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즉흥이 생산하는 무수한 의미들을 인간 본연의 가치와 능력을 회복하고 긍정적 시각을 함양하는 태도로 확장해 본 알브라이트의 맺음말은 '춤-인간-세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인상적인 대목이다.

현장의 실기전문가와 이론가들이 적극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혹은 이 두 역할을 동시에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저명한 학자들의 현장 경험 및 철학을 다양한 형태의 글과 실감나는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여러 분야를 수집하는 선집의 특성상 하나의 이론이나 즉흥의 형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기에 독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관련 서적이 더 필요하다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즉흥의 경험이 적고 현대무용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비전공자들이 읽기에는 우선 '자유분방한' 글쓰기의 형태로 인해 의미 파악이 다소 힘들 수 있기에 대학원 이상의 춤전공자들이나 즉

흥전문가들에게 더 적합할 듯하다. *Taken by Surprise: A Dance Improvisation Reader*는 춤의 세부 전공을 불문하고 즉흥에 관한 다양한 사고를 촉발하게 하는 입문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몸에 대한 철학적 사유, 역사의 재인식, 비판이론 등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고 체화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